

사회적 배척 상황에 따른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군의 공격성 양상[†]

정 다 연	임 중 민	곽 호 완	장 문 선 [‡]	이 중 환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학생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강사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육군사관학교 심리경영학과 교수

불안정한 대인관계 패턴과 공격적인 행동은 경계선 성격장애의 핵심 특성으로 간주되고 있다. 경계선 성격장애의 행동 문제는 종종 부정적인 대인관계 사건 및 유기불안에 의해 야기되므로, 부정적인 대인관계 사건이 유발된 후 공격적인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PAI-BOR)의 점수에 따라 참가자들을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집단(n=35)과 정상통제집단(n=38)으로 구분하였다. 각 집단의 참가자들은 사회적 수용상황과 배척상황에 무선 할당된 후 Cyberball 과제를 실시하였다. 이후, 반응적-외현적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Point Subtraction Aggression Paradigm(PSAP)를 사용하였으며, 반응적-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Linder, Werner와 Lyle(2010) 등이 개발한 관계적 공격성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집단은 정상통제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강하게 공격성을 표출하였다. 특히,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집단이 소외감을 경험할 때 반응적-관계적 공격성이 두드러지게 상승함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경계선 성격장애, 사회적 배척, 반응적-외현적 공격성, 반응적-관계적 공격성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장문선,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Tel: 053-950-5247, Email: moonsun@knu.ac.kr

경계선 성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는 대인관계, 자아상, 정동 등의 성격 전반에 불안정성과 충동성을 현저하게 나타내는 장애다(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 2013). 경계선 성격장애의 여러 특성 중에서도 공격성은 자신과 타인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으로 간주되며(Látalová & Praško, 2010),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는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졌다(Goodman & New, 2000). 이런 이유로 경계선 성격장애의 공격성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으나 자해나 자살과 같은 자신을 향한 공격성에 관한 연구(Brodsky, Groves, Oquendo, Mann, & Stanley, 2006; Brown, Comtois, & Linehan, 2002; Joyce, Light, Rowe, Cloninger, & Kennedy, 2010; Kullgren, 1988; Oumaya et al., 2008; Pompili, Girardi, Ruberto, & Tatarelli, 2005)가 대부분이고, 상대적으로 타인을 향한 공격성은 연구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타인을 향한 공격성은 가족 혹은 주변 지인을 위협에 빠트리거나, 심각할 경우 법적인 문제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선 성격장애의 여러 특성 중 가장 큰 위험요소라고 할 수 있다(Látalová & Praško,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가 타인을 향한 공격성을 어떠한 양상으로 표출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충동적, 공격적 행동은 경계선 성격장애 이외에도 다양한 정신 병리와 관련이 있지만(Lish, Kavoussi, & Coccaro, 1996; Moeller, Barratt, Dougherty, Schmitz, & Swann, 2001),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가 공격성을 나타내는 원인과 양상은 다른 정신병리 혹은 성격장애와 차이가 있다. 예

를 들어, 반사회성 성격장애 환자는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얻기 위해 공격성을 표출하는 반면(Washburn et al, 2007),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는 정서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공격성을 표출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실제로 반사회성 성격 특성은 신체 혹은 언어를 통해 표출하는 직접적 공격성과 높은 상관을 보였고, 경계선 성격 특성은 과민성, 죄책감, 분노와 같은 정서적 공격성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Fossati et al., 2007; Fossati et al., 2004). 즉,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외현적, 직접적 공격성과 관련이 있고, 경계선 성격장애는 정서적, 충동적 공격성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 상반되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는데, 경계선 성격장애 및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공격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연구(임지영, 황순택, 2011)에서 경계선 성격장애는 정서적, 신체적 공격성 모두와 관련이 있었고, 또 다른 연구(Sansone & Sansone, 2012)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가 외현적 공격성을 나타낸다고 밝혀졌다. 이처럼 경계선 성격장애의 공격성에 관한 연구는 결과가 혼재되어 있는데, 이는 공격성을 자기보고식 설문문을 통해 측정했기 때문에 참가자의 방어적인 응답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고려된다. 이에 실험 과제를 활용하여 경계선 성격장애의 공격성을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공격성을 알아보기 위한 여러 연구들에서, 공격성은 주로 Dodge와 Coie(1987)가 제안한 것에 따라 주도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으로 분류되었다. 이후 Little, Henrich, Jones와 Hawley(2003)가 관계적 공격성 및 외현적 공격성을 추가로 도입함에 따라 공격성은 주로 4가지(반응적-외현적, 반응적-관계적, 주도적-외현적, 주도적-관계적)로

분류되었다.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는 자신의 욕구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주도적 공격성)으로 공격성을 표출하기보다는 자신을 향한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반응적 공격성)으로 공격성을 표출한다(Critchfield, Levy, Clarkin, & Kernberg, 2008; Dougherty, Bjork, Huckabee, Moeller, & Swann, 1999; Herr, Keenan-Miller, Rosenthal, & Feldblum, 2013). 아울러,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는 주로 정서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경험한 부정적인 정서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공격성을 표출하는 반응적 공격성을 나타낸다고 밝혀졌으며(Gardner, Archer, & Jackson, 2012; Linehan, 1993; Lobbestael, Cima, & Lemmens, 2015), Ostrov와 Houston(2008)은 반응적 공격성이 경계선 성격장애와 같은 정신병리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고려한다면,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는 주도적 공격성보다는 반응적 공격성을 주로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반응적 공격성을 중심으로 경계선 성격장애의 공격성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반응적-관계적 공격성이란 대인관계 상황에서 관계를 손상시키거나 관계손상에 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지각된 위협이나 도발 상황에 반응하는 기제를 가지며 주로 충동적이며 정서적으로 표출된다. 반면, 반응적-외현적 공격성이란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분노나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는 지각된 위협이나 도발과 관련된다(한영경, 김은정, 2011). 즉 두 가지 공격성 모두 지각된 위협이나 도발과 관련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직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격성을 표출하는 것이 반응적-외현적 공격성이라면, 간접적인 방법

으로 관계단절의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반응적-관계적 공격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계선 성격장애가 위와 같은 반응적 공격성의 두 가지 유형 중 어떤 유형을 더 두드러지게 나타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경계선 성격장애가 나타내는 공격성 유형에 대한 정보는 경계선 성격장애가 겪는 어려움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응적 공격성의 두 가지 차원인 반응적-관계적 및 반응적-외현적 공격성의 양상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Koenigsberg 등(2001)은 공격성이 경계선 성격장애의 진단기준 중 대인관계 불안정성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이와 유사하게 경계선 성격장애가 가진 행동 문제의 대부분은 유기불안 등의 부정적인 대인관계 사건으로 유발된다고 밝혀졌으며(Herpertz, 1995; Rafaei, Howland, Vorus, Skodol, & Gunderson, 2007; Stiglmayr et al., 2005),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거부, 배척, 비난으로 인해 유발된 부정적인 감정이 공격성으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Ayduk, Downey, Testa, Yen, & Shoda, 1999; Tangney, Wagner, Fletcher, & Gramzow, 1992). 마찬가지로 Gunderson(2008)은 경계선 성격장애가 헤어짐이나 거절이 예견될 때 유기불안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자신(bad self) 또는 세상(bad others)에 대한 분열이 일어나고, 상황을 왜곡하여 지각함으로써 충동적인 공격성이 표출된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그는 모든 경계선 성격장애의 증상들은 대인관계의 맥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경계선 성격장애의 공격성 이면에 대인관계 과민감성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인관계 스트레스 사

건이 경계선 성격장애의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대인관계 상황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 지나친 노력을 기울이고, 헤어짐이나 거절, 상실 등이 예견되면 자아상, 정동, 인지 및 행동에서 심각한 변화를 보이므로 대인관계 상황에서 종종 어려움을 겪는다(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 2013). 이와 같은 불안정한 대인관계 패턴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초창기 연구에서부터 경계선 성격장애의 중심 특성으로 간주되어 왔으며(Adler & Buie, 1979; Benjamin, 1993; Fonagy, Target & Gergeley, 2000; Gunderson, 1996; Kernberg, 1967; Knight, 1954; Masterson, 1972; Stern, 1938), 지금까지도 경계선 성격장애의 진단에 있어서 대인관계 과민감이 중심적인 특징으로 계속 남아있고, 장애의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는데 점점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Gunderson, 2007).

경계선 성격장애는 짧은 시간에 급속한 기분변화를 나타내며, 불쾌한 감정에서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Crowell, Beauchaine, & Linehan, 2009; Jacob et al., 2008; Lieb, Zanarini, Schmahl, Linehan, & Bohus, 2004; Links et al., 2007)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어려움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실제로 10년간의 종단연구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의 15~25%가 이와 관련된 증상의 호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Choi-Kain, Zanarini, Frankenburg, Fitzmaurice, & Reich, 2010), 또 다른 종단적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의 증상이 호전될 때, 긍정적인 대인관계 양상이 나타났으며(Links & Heslegrave 2000), 전형적으로 대인관계 상황에서 보였던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되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Rafaeli et al., 2007). 반대로 경계선 성격장애의 증상이 재발했을 때는, 주로 부정적인 대인관계 상황을 겪은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Zanarini, et al., 2007). 이와 같은 연구들은 대인관계 과민감이 경계선 성격장애에게서 중요한 취약점이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대인관계 맥락 속에서 더 높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뒷받침한다.

거절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은 대인관계 맥락 속에서 거부 혹은 유기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유발시키고 이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Downey, Mougios, Ayduk, London, & Shoda, 2004). 실제로 경계선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거부와 관련된 단서를 쉽게 감지하고 이에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나타냈다(Berenson, Downey, Rafaeli, Coifman, & Paquin, 2011; Tragesser, Lippman, Trull, & Barrett, 2008). 이와 유사하게, Stiglmayr 등(2005)은 거절민감성이 경계선 성격장애 여성의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강하게, 오래 지속하게 하는 촉발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발견했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거부감이나 유기불안이 유발될 때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충동적이며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Gunderson, 2009). 경계선 성격장애의 부정적인 정서와 다투는 행동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에서, 대인관계 상황에서 경험한 거부나 단절감이 그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Sadikaj, Moskowitz, Russell, Zuroff, & Paris, 2013). 또한 경계선 성격장애와 관련된 공격적인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증상과 공격성 사이의 연관성이 거부와 같은 부정적인 대인관계에 의해 중재된다는 것을 발견했다(Herr et al., 2013).

이처럼 공격적인 행동이 경계선 성격장애의 핵심 특성으로 널리 여겨지고 있지만 대인관계 맥락에서 유발되는 정서를 중심으로 그에 따른 공격적인 행동을 살펴본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이를 실험을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 집단을 대상으로 실제 대인관계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의 유기불안을 유발시킨 후, 이에 따라 공격성의 표출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가설 1.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배척 상황 사이버볼(Cyberball) 게임에서 소외감을 더 많이 보고할 것이다.

가설 2.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반응적-외현적 공격성 및 반응적-관계적 공격성 모두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3.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집단은 배척 상황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3-1. 수용 상황에 비해 배척 상황에서 반응적-외현적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3-2. 수용 상황에 비해 배척 상황에서 반응적-관계적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4. 통제집단은 배척 상황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방법

참가자

남녀 대학생 452명을 대상으로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PAI-BOR)를 실시하였다. 이 중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29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23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 집단에 대한 선행연구(이종환, 곽호완, 이상일, 장문선, 2013)에서 원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1.5 표준편차 이상에 해당되는 집단을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집단으로 분류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 집단을 선정하였다. 정상통제집단의 경우 평균 점수인 50T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분석에 포함된 참가자들은 총 73명(경계선 성격장애 경향 집단 35명, 정상 통제집단 38명)이다.

측정도구

질문지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Borderline Features Scale: PAI-BOR). PAI-BOR은 성인의 성격을 평가하기 위해 Morey(1991)가 개발한 객관식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11개의 임상척도 중 하나이다. PAI-BOR의 경우 기준에는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홍상황과 김영환(1998)이 번안하고 타당화하는 과정에서 문항-총점 간 상관이 낮은 문항을 제외하여 구성된 한국판 척도 23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0(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3(매우 그렇다)의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경계선 성격장애 특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실험과제

Cyberball. Cyberball은 참가자들에게 사회적 배척경험 및 수용경험을 유도하기 위해 Williams, Cheung과 Choi(2000)가 개발한 도구이다. 이는 연구자가 사회적 배척 상황을 실험장면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참가자가 온라인에서 가상의 다른 참가자들과 서로 공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사회적 수용 및 배척이 일어난다. 참가자는 다른 참가자들과 온라인상으로 게임을 함께 하는 것처럼 설계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참가자가 홀로 게임을 수행한다. 화면에 나타나는 참가자는 총 3명으로, 7분정도가 배척 효과를 유도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증명된 선행연구에 따라 (Gutz, Küpper, Renneberg, & Niedeggen, 2011; Weschke, Niedeggen, 2013) 본 연구에서도 약 7분 동안 게임을 지속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은 실험을 시작하기 전 연구자로부터 “지금부터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온라인상으로 공을 주고받는 게임을 할 것입니다.”라는 지시문을 전해 들었다. 사회적 수용 상황에 무선 할당된 참가자들은 가상의 다른 참가자들과 동일한 비율(약 33%)로 공을 받게 된다. 반면, 사회적 배척 상황의 경우, 참가자들은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저조한 비율(약 15%)의 공만을 받음으로써 대부분의 시간을 가상의 다른 참가자들끼리 공을 주고받는 장면을 지켜보게 된다. Cyberball 게임

을 하는 동안 사회적 배척이 잘 유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Williams 등(2000)의 연구에서 조작점검 질문으로 사용된 질문을 통해 사후질문지를 작성하였다. 게임을 하는 동안 얼마나 소외당한 기분이었는지 1(전혀 그런 기분이 아니었다)에서 5(매우 많이 그런 기분이었다)의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게임을 하는 동안 자신이 받은 공 횟수의 비율을 추정하여 기입하도록 하는 개방형 질문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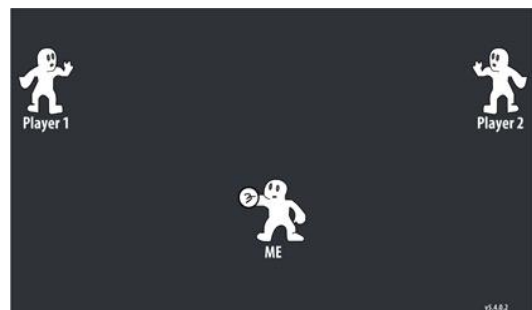


그림 1. Cyberball 화면 예시

Point Subtraction Aggression Paradigm (PSAP). Point Subtraction Aggression Paradigm(PSAP)는 연구 상황에서 참가자들의 공격성을 실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Cherek(1981)가 개발한 도구이다. 연구자는 참가자들에게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통해 사레비를 지급할 예정이므로 가능한 한 많은 점수를 얻는 것이 게임의 목적이라고 설명 하였다. 참가자들이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키보드의 숫자 1을 눌러야 하며, 1을 100번 누를 때마다 점수가 1점씩 쌓인다. 또한 연구자는 참가자들에게 여태껏 모아둔 점수가 반짝거리다가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는데, 이는 함께 게임을 하는 다른 참가자가 자신의 점수를 빼앗아 갔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경우,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참가자의 도발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1번을 눌러 자신의 점수를 모으거나, (2) 2번을 10번 누름으로써 다른 참가자의 점수를 삭감시키는 보복행위를 하거나, 혹은 (3) 3번을 10번 누름으로써 일정 시간 동안 다른 참가자가 자신의 점수를 삭감시키지 못하게 보호할 수 있다. 이 때 2번을 눌러 다른 참가자의 점수를 삭감시킨다고 해도 삭감시킨 점수가 자신의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참가자에게 2번을 누름으로 인한 어떠한 혜택도 없으며, 가능한 다른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번을 누른다는 것은 다른 참가자에게 외현적으로 공격성을 드러낸 행동이므로 이를 반응적-외현적 공격성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기존의 PSAP에서는 과제를 모두 수행하는데 약 3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이후 한 세션당 25분씩 총 3세션을 수행하는 단축판이 등장하였으며 (Golomb, Cortez-Perez, Jaworski, Mednick, & Dimsdale, 2007), 가장 최근에는 한 세션당 12분씩 수행하는 수정판이 개발되었다 (Carré & McCormick, 200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참가자들은 세션당 12분씩 총 3세션을 수행하였으며, 각 세션 사이에 약 2분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짐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는데 약 4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반응적-외현적 공격성의 지표는 선행연구(Gowin, Swann, Moeller, & Lane, 2010)에 따라, 참가자들이 3번의 모든 세션을 수행하는 동안 1번을 누른 총 횟수 대비 2번을 누른 횟수의 비율로 산출하였다. 이 때 자신의 점수가 삭감되기 이전에 2번을 누른다는 것은 반

응적인 행동이 아닌 주도적인 행동으로 간주하여 이 횟수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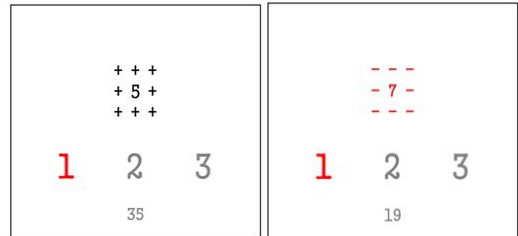


그림 2. PSAP 화면 예시

반응적-관계적 공격성 시나리오. Linder, Werner와 Lyle(2010) 등은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12-13문장으로 구성된 6가지 시나리오를 개발하였으며, 모든 시나리오는 다양한 대인관계 상황(예, 연인, 친구, 형제자매)에서의 갈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시나리오에는 의도가 모호한 한 등장인물의 행동으로 인해 주인공이 피해를 입게 되고, 피해를 입은 주인공이 관계적 공격성을 사용해 보복하는 내용(예, 연인을 질투하게 만들기 위해 다른 이성과 가까이 지내기, 헤어지자고 위협하기, 친구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 따돌리기 등)이 들어 있다. 즉,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복으로 관계적 공격성을 사용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반응적-관계적 공격성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각 시나리오에서 0(매우 약하게)에서 7(매우 강하게)의 Likert식 7점 척도를 사용하여 관계적 공격성을 얼마나 강하게 사용하여 보복을 할 것인지 평정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반응적-관계적 공격성을 더 강하게 표출한다고 간주하였다.

본 시나리오는 영어로 제시되어 있어 우리말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시나리오를 번안하는 과

정에서 본 연구자 및 임상심리 전문가 2인이 함께 검토하였다. 또한 6가지 시나리오 중 대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연인관계 상황 및 대학교에서의 대인관계 상황을 다룬 2가지 이야기만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번안한 시나리오가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기에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생 101명(남 43명, 여 58명, 평균연령 21.46세, $SD=3.061$)을 대상으로 한국판 관계적 공격성 척도(배라영, 최지영, 2018)와의 상관 및 그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시나리오는 관계적 공격성의 다양한 유형 중 특히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과의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상관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한국판 관계적 공격성 척도와 반응적-관계적 공격성 시나리오의 상관계수

	연인 이야기	또래 이야기
주도적-관계적 공격성	.16	.22*
반응적-관계적 공격성	.53**	.51**
애정적-관계적 공격성	.14	.13

주. * $p<.05$, ** $p<.001$.

절차

본 연구 참가에 동의한 참가자들(경계선 성격장애 경향집단 35명, 정상통제집단 38명)을 대상으로 Cyberball 과제(약 7분)의 배척 상황과 수용 상황에 무선헌당 한 후, 반응적-외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과제(약 40분), 반응적-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과제(약 10분)를 시행하였다. 순서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Cyberball 과제를 시행한 후 참가자의 절반은 반응적-외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과제를 먼저, 나머지 절반은 반응적-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과제를 먼저 수행하였다. 본 실험을 모두 수행하는데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모든 참가자는 실험이 종료된 후 긍정정서를 유도하는 영상을 시청하였다. PSAP과제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모든 참가자들은 실험에 대한 참가비로 동일하게 5,000원을 지급받았다.

본 연구는 소속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IRB) 윤리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승인번호: 2018-0097).

결 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측정변인의 비교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집단과 정상 통제집단 간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측정변인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연령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t(71)=-.325$, ns , PAI-BOR 척도, $t(71)= 19.431$, $p<.001$, 및 성별, $\chi^2(1, N=73)=5.759$, $p<.05$ 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경계선 성격장애가 여성에게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장애이기 때문에(약 75%), 이와 같은 결과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간주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각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PAI-BOR 척도의 평균 점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변인	BPD 경향 집단		통제집단	
	수용 상황 (<i>n</i> =17)	배척 상황 (<i>n</i> =18)	수용 상황 (<i>n</i> =18)	배척 상황 (<i>n</i> =20)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성별(남:여)	4:13	4:14	9:9	10:10
연령	21.47 (1.77)	20.78 (2.05)	21.06 (1.98)	21.45 (2.01)
PAI-BOR	65.59 (3.95)	67.94 (7.73)	41.89 (5.49)	40.50 (4.63)
소외감	2.71 (1.05)	4.11 (1.02)	2.00 (.91)	2.40 (1.19)
공 비율 추정치	25.53 (4.47)	12.28 (4.69)	29.50 (4.23)	21.65 (7.94)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	2.32 (2.78)	3.39 (3.05)	1.61 (1.28)	1.64 (2.15)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3.15 (1.20)	4.47 (1.13)	3.06 (1.25)	3.20 (1.28)

주. BPD=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AI-BOR=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borderline features

측정도구들 간의 상관계수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척도들 간의 상관계수

	1	2	3	4	5
1. PAI-BOR	-	.57**	-.51**	.38*	.43**
2. 소외감	.28	-	-.63**	.32*	.23
3. 공 비율 추정치	-.40*	-.08	-	-.37*	-.20
4.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11	-.01	-.23	-	.14
5.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	.16	-.13	-.03	.29	-

주. PAI-BOR=personalit assessment inventory-borderline features
대각선 아래는 수용 상황, 대각선 위는 배척 상황
p*<.05, *p*<.001.

사전동질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상황조건을 집단 간 변수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각 집단의 상황조건에 대한 사전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먼저,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집단에서 수용 상황 및 배척 상황에 할당된 집단의 사전 동질성을 확인한 결과,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 집단에서 성별, $X^2(1, n=35)=.008, ns$, 연령, $t(33)=1.068, ns$, PAI-BOR 척도, $t(33)=-1.124, ns$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정상통제집단에서도 성별, $X^2(1, n=38)=.000, ns$, 연령, $t(36)=-.607, ns$, PAI-BOR 척도, $t(36)=.846, ns$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 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회적 배척 경험 비교

사회적 배척 경험에 대한 실험 조작이 참여자에게 소외감을 유발시켰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Cyberball 게임 후에 경험한 정서 상태 및 공 비율 추정치에 대한 집단과 상황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소외감의 평균 점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의 주효과, $F(1, 69)= 24.08, partial \eta^2=.26, p<.001$ 와 상황의 주효과, $F(1, 69)= 13.43, partial \eta^2=.16, p<.001$ 가 모두 유의하였으며, 집단과 상황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F(1, 69)= 4.17, partial \eta^2=.06, p<.05$. 또한 공 비율의 평균 점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의 주효과, $F(1, 69)= 25.42, partial \eta^2=.27, p<.001$ 와 상황의 주효과, $F(1, 69)= 63.59, partial \eta^2=.48, p<.001$ 가 모두 유의하였으며, 집단

과 상황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F(1, 69) = 4.17$, $\text{partial } \eta^2 = .06$, $p < .05$. 상황에 대한 주효과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참가자가 다르게 반응하여 나타난 결과로, 상황에 대한 조작이 유효함을 시사한다.

소외감 정서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집단과 상황의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집단과 상황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수용 상황, $F(1, 33) = 4.56$, $\text{partial } \eta^2 = .12$, $p < .05$ 및 배척 상황, $F(1, 36) = 22.40$, $\text{partial } \eta^2 = .38$, $p < .001$ 모두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공 비율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집단과 상황의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집단과 상황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용 상황, $F(1, 33) = 7.28$, $\text{partial } \eta^2 = .18$, $p < .05$ 및 배척 상황, $F(1, 36) = 19.06$, $\text{partial } \eta^2 = .35$, $p < .001$ 모두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경계선 성격장에 경향집단은 수용 및 배척 상황 모두에서 통제집단에 비해 더 강한 소외감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소외감, 공 비율 추정치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종속 변인	독립 변인	SS	df	MS	F	η^2
소외감	A	25.56	1	25.56	24.08*	.26
	B	14.82	1	14.82	13.43*	.16
	A*B	4.59	1	4.59	4.17*	.06
공 비율	A	809.47	1	809.47	25.42*	.27
	B	2024.60	1	2024.60	63.59*	.48
	A*B	132.67	1	132.66	4.17*	.06

주. A=집단, B=상황

* $p < .05$.

사회적 배척 경험에 따른 경계선 성격장에 경향 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공격성 차이

먼저 공격성의 유형 및 평균점수를 표 2에 제시하였으며, 사회적 배척 경험 이후 집단 간 공격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각 공격성에 따른 집단(경계선 성격장에 경향집단, 정상통제집단), 상황조건(수용 상황, 배척 상황)의 2x2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반응적-외현적 공격성에서는 집단의 주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F(1, 69) = 4.77$, $\text{partial } \eta^2 = .07$, $p < .05$. 반면, 반응적-관계적 공격성에서 집단의 주효과, $F(1, 69) = 5.71$, $\text{partial } \eta^2 = .08$, $p < .05$, 상황의 주효과, $F(1, 69) = 6.63$, $\text{partial } \eta^2 = .01$, $p < .05$ 가 모두 유의하였으며, 집단과 상황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F(1, 69) = 4.28$, $\text{partial } \eta^2 = .04$, $p < .05$.

반응적-외현적 공격성에서 집단과 상황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배척 상황에서 집단 간 공격성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F(1, 36) = 4.23$, $\text{partial } \eta^2 = .11$, $p < .05$. 이는 소외감이 유발된 상황에서 경계선 성격장에 경향집단이 정상통제집단에 비해 반응적-외현적 공격성을 더 강하게 표출함을 시사한다.

반응적-관계적 공격성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집단과 상황의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집단과 상황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수용 상황에서 집단 간 공격성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F(1, 33) = .05$, $\text{partial } \eta^2 = .00$, ns , 배척 상황에서 경계선 성격장

에 경향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공격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F(1, 36)=10.43$, $partial \eta^2=.23$, $p<.01$. 또한 경계선 성격장애는 수용 상황에 비해 배척 상황에서 공격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F(1, 33)=11.36$, $partial \eta^2=.26$, $p<.01$, 정상통제집단은 상황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F(1, 36)=.12$, $partial \eta^2=.00$, ns . 즉, 수용 상황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와 정상통제집단 간의 공격성 표출의 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소외감이 유발되었을 때 경계선 성격장애의 공격성 표출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시사한다.

표 5. 공격성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종속 변인	독립 변인	SS	df	MS	F	η^2
반응적-외현적 공격성	A	8.46	1	8.46	5.71*	.08
	B	9.82	1	9.82	6.63*	.01
반응적-관계적 공격성	A	6.34	1	6.34	4.28*	.04
	B	27.47	1	27.47	4.77*	.07
반응적-외현적 공격성	A	5.61	1	5.61	.97	.01
	B	4.87	1	4.87	.85	.01

주. A=집단, B=상황

* $p<.05$.

반응적-외현적 공격성에 따른 집단과 상황의 상호작용을 그림 3에, 반응적-관계적 공격성에 따른 집단과 상황의 상호작용을 그림 4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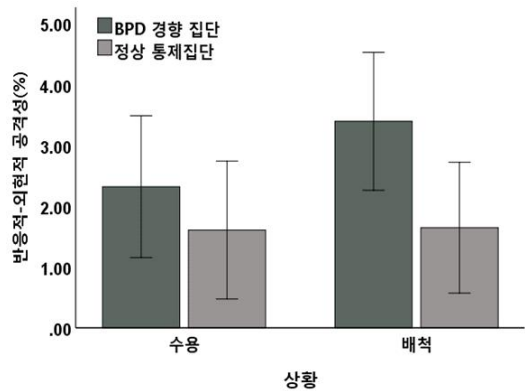


그림 3. 반응적-외현적 공격성에서 집단과 상황 간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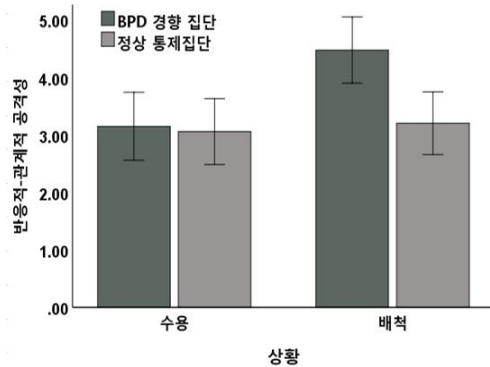


그림 4. 반응적-관계적 공격성에서 집단과 상황 간의 상호작용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을 경계선 성격장애 수준에 따라 집단을 구성하고, 사회적 수용 상황 및 배척 상황으로 무선 할당하여 소외감을 유발시킨 후 그에 따라 각각의 공격성 표출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그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계선 수준에 따라 사회적 수용 및 배척 경험으로 인한 소외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과 상황의 주효과 및 집단과 상황의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상황에 대한 주효과는 참가자들이 수용 상황과 배척 상황에서 경험한 소외감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로, 즉 수용 상황보다 배척 상황에서 소외감이 더 강하게 유발되었음을 시사한다.

집단과 상황의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집단은 배척 상황은 물론 수용 상황에서도 정상통제집단에 비해 더 강한 소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Cyberball 게임을 통해 정서를 유발한 선행연구들(De Panfilis, Riva, Preti, Cabrino, & Marchesi, 2015; Renneberg et al., 2012; Staebler et al., 2011)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이 정상통제집단보다 수용 상황에서 공을 받은 비율을 더 낮게 인식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더 쉽게 소외감을 느낀다는 결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경계선 성격장애는 단순히 실제적인 거절에 대해서만 과민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수용된 상황에서도 사회적 단절감과 관련된 감정이 활성화 될 수 있다(De Panfilis et al., 2015). 이 모든 결과에서 경계선 성격장애가 겪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참여도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정상통제집단과 비교했을 때 사회적 맥락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Lazarus, Cheavens, Festa, & Rosenthal, 2014). Gunderson과 Lyons-Ruth(2008)의 이론에 따르면, 거부에 대한 위협이나 외로움은 경계선 성격장애의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으

며, 경계선 성격장애가 나타내는 문제의 근원은 유기불안이나 거절민감성, 혹은 실제적인 배척 경험에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경계선 성격장애는 자신이 혼자라고 느낄 때, 자신이나 세상에 대한 분열이 일어나거나 약간의 편집증적 경험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집단이 수용 상황과 배척 상황 모두에서 정상통제집단에 비해 소외감을 강하게 경험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편집증적인 해석과 더불어 거절민감성이 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배척 경험에 따른 반응적-외현적 공격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전반적인 상황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집단이 정상통제집단에 비해 반응적-외현적 공격성을 강하게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PSAP 과제를 시행하여 공격성을 측정한 선행연구들(Dougherty et al., 1999, McCloskey et al., 2009)에서 경계선 성격장애가 통제집단에 비해 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나타냈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경계선 성격장애가 직접적이고 외현적인 공격성과 관련성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된 선행연구(Sansone & Sansone, 2012)와도 일맥상통 한다.

반응적-외현적 공격성에 따른 집단과 상황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용 상황에서 집단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배척 상황에서는 집단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수용 상황에서 경계선 성격장애와 정상통제집단 간의 공격성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는 결과는 PSAP

과제를 사용하여 경계선 성격장애와 통제집단 간의 공격성 차이를 입증한 선행연구(Dougherty et al., 1999, McCloskey et al., 2009)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의 불일치에 대한 설명으로, 연구대상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집단과 정상통제집단을 대상으로 PSAP 과제를 실시한 반면,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계선 성격특성이 높은 집단을 경향 집단으로, 경계선 성격특성이 낮은 집단을 정상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여 과제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수용 상황의 집단 간 주효과가 발견되지 않은 점은 집단 구성원이 병리가 심각하지 않은 일반 대학생이기 때문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배척 상황에서는 집단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적절히 기능하고 있는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 집단이 평소에는 공격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지 않지만, 소외감이 유발되면 대인관계 과민감성으로 인해 반응적-외현적 공격성을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배척 경험에 따른 반응적-관계적 공격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의 주효과, 상황의 주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전반적인 모든 상황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집단이 정상 통제집단에 비해 반응적-관계적 공격성을 더 강하게 표출하며, 배척 상황에서 두 집단 모두 반응적-관계적 공격성을 더 강하게 표출함을 시사한다.

집단과 상황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나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계선 성격장애는

수용 상황에 비해 배척 상황에서 반응적-관계적 공격성을 유의한 수준으로 더 강하게 표출하였으나, 정상통제집단에서는 상황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경계선 성격장애가 평소 또래 사이의 질투나 사이버 따돌림(Cyberbullying)과 정적인 상관이 나타나며(Stockdale, Coyne, Nelson, & Ericson, 2015), 관계적 공격성이 성인기에 나타나는 경계선 성격장애 증상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Werner & Crick, 1999)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이 양상이 특히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소외감이라는 부정적인 정서가 유발되었을 때 급증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대인관계 상황에서 버림받는 것에 대해 민감한 경계선 성격장애가 공격성을 직접적이고 외현적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타인과의 관계단절에 덜 위협적인 간접적인 방식으로 공격성을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Ostrov, Hart, Kamper, & Godleski, 2011).

종합하면, 반응적-외현적 및 반응적-관계적 공격성 모두에서 집단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으므로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집단은 전반적으로 정상 통제집단에 비해 공격성을 강하게 표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경계선 성격장애가 높은 공격성과 충동성을 보인다는 이전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Gardner & Cowdry, 1986; 임지영, 황순택, 2011). 그러나 수용 상황에서 경계선 성격장애와 정상통제집단은 반응적-외현적 및 반응적-관계적 공격성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배척 상황에서는 두 가지 공격성 모두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Kernberg(1967)의 이론에 따르면, 경계선 성격장애는 자신에 대한 표상이 나쁜

경우(bad self) 공격성이 자신에게 향하게 되어 타인을 향한 공격성이 억제되지만, 나쁜 표상이 타인에게 투사되는 경우(bad other) 부적응적인 공격성이 갑작스럽고 과하게 표출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서는 이러한 표상의 전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으나, Gunderson과 Lyons-Ruth(2008)에 따르면 평소 경계선 성격장애가 우울, 불안 등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내재하고 있지만, 유기불안이나 거절민감성 등의 대인관계 과민감이 활성화 될 때 타인에 대한 분열이 일어나며, 이로 인해 공격성이 표출된다고 설명한다. 즉, 수용 상황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집단의 공격성이 표출되지 않은 것은 타인에게 나쁜 표상이 투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성이 내적으로 억제되어 있지만, 대인관계 상황에서 소외감이 유발되었을 때는 나쁜 표상이 타인에게로 투사되면서 배척 상황에서의 공격성 표출이 정상 통제집단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부정적인 대인관계 사건으로 유발된 정서에 따른 공격성의 세부적인 양상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단일지표로서의 공격성을 사용하였으며, 부정적인 대인관계 상황과 공격성을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활용하여 경로를 탐색하는데 그쳤기 때문에(Sadikaj et al., 2013; Herr et al., 2013), 그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실제 대인관계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소외감을 유도하고, 실험적인 방법으로 공격성을 측정하여 부정적인 대인관계 사건으로 인해 경계선

성격장애가 나타내는 공격성의 구체적인 표출 양상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장애가 나타내는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치료적 함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가 나타내는 공격적인 행동, 특히 관계적 공격성이 대인관계 상황에서 유발되는 부정적인 정서를 통해서 그 양상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재 경계선 성격장애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은 거의 없으며,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변증법적 행동치료(Dialectical Behavioral Therapy: DBT)도 증상의 완화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다(Lieb et al., 2004).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경계선 성격장애의 공격적인 행동에 관한 치료적 개입에서, 단순히 공격적인 행동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 보다 부정적인 대인관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기술 혹은 그로 인해 유발되는 정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성격장애의 차원적 모델(Widiger & Trull, 2007)에 따르면 경계선 성격장애에 임상집단도 경향집단과 질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임상집단에서도 이와 같은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가자에게 사회적 배척을 유도한 후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외감의 영향이 점차 줄어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러 선행연구에서 경계선 성격장애는 불쾌한 감정에서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였으며(Crowell et al., 2009; Jacob et al., 2008; Lieb et al., 2004; Links et al., 2007), 본 연

구에서는 공격성 과제의 실시순서를 역균형화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통제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타당할 수 있다고 시사한다.

둘째, 참가자들은 Cyberball 과제 실시 후 소외감을 묻는 사후질문지를 작성함으로써 본 연구의 목적이 드러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PSAP 과제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사후질문지 작성 시 소외감 이외의 긍정 및 부정적 감정에 대한 질문을 추가한다면 보다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경계선 성격장애가 여성에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장애이므로 실험집단의 여성성비가 높다. 그러나 본 연구의 통제집단 선정 시 남녀 비율을 동등하게 했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성비를 유사하게 선정하여 본 연구와 같은 실험결과가 도출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상황조건을 집단 간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는 상황조건을 집단 내 변수로 설정할 시 발생할 수 있는 공격성 과제의 연습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각 집단 내에서 공격성의 표출 양상을 보다 용이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상황조건을 집단 내 변수로 설정하여 이를 반복검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배척 상황을 보다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위해 가상현실을 활용하거나, 수용-배척-수용 상황을 하나의 조건으로 설정한다면 수용 후 배척경험 혹은 배척경험 후 수용경험을 했을 때 나타나는 차이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배라영, 최지영 (2018). 한국판 관계적 공격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1), 55-79.
- 이종환, 곽호완, 이상일, 장문선 (2013). 경계선 성격장애에 성향군의 정서조절 능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3), 543-565.
- 임지영, 황순택 (2011). 경계선과 반사회성 성격병리에서의 충동성과 공격성 비교.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1), 71-92.
- 한영경, 김은정 (2011). 초기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 하위유형의 특성 탐색.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4), 985-1002.
- 홍상환, 김영환 (1998).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의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7(1), 259-271.
- Adler, G., & Buie, D. (1979). The psychotherapeutic approach to aloneness in borderline patients. *Advances in Psychotherapy of The Borderline Patient*, 433-448.
- Diagnostic, A. P. A. (2013).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ed.)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American Psychiatric Pub.
- Ayduk, O., Downey, G., Testa, A., Yen, Y., & Shoda, Y. (1999). Does rejection elicit hostility in rejection sensitive women? *Social Cognition*, 17(2), 245-271.
- Benjamin, L. S. (1993). *Interpersonal diagnosis and treatment of personality disorders*. New York: Guilford Press.
- Berenson, K. R., Downey, G., Rafaeli, E., Coifman, K. G., & Paquin, N. L. (2011). The rejection - rage contingency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0(3), 681.

- Brodsky, B. S., Groves, S. A., Oquendo, M. A., Mann, J. J., & Stanley, B. (2006). Interpersonal precipitants and suicide attempts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6*(3), 313-322.
- Brown, M. Z., Comtois, K. A., & Linehan, M. M. (2002). Reasons for suicide attempts and nonsuicidal self-injury in women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1*(1), 198.
- Carré, J. M., & McCormick, C. M. (2008). Aggressive behavior and change in salivary testosterone concentrations predict willingness to engage in a competitive task. *Hormones and Behavior, 54*(3), 403-409.
- Cherek, D. R. (1981). Effects of smoking different doses of nicotine on human aggressive behavior. *Psychopharmacology, 75*(4), 339-345.
- Choi-Kain, L. W., Zanarini, M. C., Frankenburg, F. R., Fitzmaurice, G. M., & Reich, D. B. (2010). A longitudinal study of the 10-year course of interpersonal features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4*(3), 365-376.
- Critchfield, K. L., Levy, K. N., Clarkin, J. F., & Kernberg, O. F. (2008). The relational context of aggression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Using adult attachment style to predict forms of hostilit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4*(1), 67-82.
- Crowell, S. E., Beauchaine, T. P., & Linehan, M. M. (2009). A biosocial developmental model of borderline personality: Elaborating and extending linehan's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35*(3), 495.
- De Panfilis, C., Riva, P., Preti, E., Cabrino, C., & Marchesi, C. (2015). When social inclusion is not enough: Implicit expectations of extreme inclusion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6*(4), 301.
- Dodge, K. A., & Coie, J. D. (1987). Social-information-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6), 1146.
- Dougherty, D. M., Bjork, J. M., Huckabee, H. C., Moeller, F. G., & Swann, A. C. (1999). Laboratory measures of aggression and impulsivity in women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sychiatry Research, 85*(3), 315-326.
- Downey, G., Mougios, V., Ayduk, O., London, B. E., & Shoda, Y. (2004).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defensive motivational system: Insights from the startle response to rejection cues. *Psychological Science, 15*(10), 668-673.
- Fonagy, P., Target, M., & Gergely, G. (2000). Attachment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theory and some evidence. *Psychiatric Clinics, 23*(1), 103-122.
- Fossati, A., Barratt, E. S., Borroni, S., Villa, D., Grazioli, F., & Maffei, C. (2007). Impulsivity, aggressiveness, and DSM-IV personality disorders. *Psychiatry Research, 149*(1-3), 157-167.
- Fossati, A., Barratt, E. S., Carretta, I., Leonardi, B., Grazioli, F., & Maffei, C. (2004). Predicting borderline an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in nonclinical subjects using measures of impulsivity and aggressiveness. *Psychiatry Research, 125*(2), 161-170.
- Gardner, D. L., & Cowdry, R. W. (1986). Positive effects of carbamazepine on behavioral dyscontrol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 J Psychiatry, 143*(4), 519-522.
- Gardner, K. J., Archer, J., & Jackson, S. (2012). Does maladaptive coping mediate the relationship

-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and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38(5), 403-413.
- Golomb, B. A., Cortez-Perez, M., Jaworski, B. A., Mednick, S., & Dimsdale, J. (2007). Point subtraction aggression paradigm: validity of a brief schedule of use. *Violence and Victims*, 22(1), 95.
- Goodman, M., & New, A. (2000). Impulsive aggression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urrent Psychiatry Reports*, 2(1), 56-61.
- Gowin, J. L., Swann, A. C., Moeller, F. G., & Lane, S. D. (2010). Zolmitriptan and human aggression: interaction with alcohol. *Psychopharmacology*, 210(4), 521-531.
- Gunderson, J. G. (1996). The borderline patient's intolerance of aloneness: insecure attachments and therapist availability.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3(6), 752.
- Gunderson, J. G. (2007). Disturbed relationships as a phenotype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4(11), 1637-1640.
- Gunderson, J. G. (2009).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clinical guide*. American Psychiatric Pub.
- Gunderson, J. G., & Lyons-Ruth, K. (2008). BPD's interpersonal hypersensitivity phenotype: A gene-environment-developmental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2(1), 22-41.
- Gutz, L., Küpper, C., Renneberg, B., & Niedeggen, M. (2011). Processing social participation: an event-related brain potential study. *Neuroreport*, 22(9), 453-458.
- Herpertz, S. (1995). Self injurious behaviour Psychopathological and nosological characteristics in subtypes of self injurer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91(1), 57-68.
- Herr, N. R., Keenan-Miller, D., Rosenthal, M. Z., & Feldblum, J. (2013). Negative interpersonal events mediate the relation between borderline features and aggressive behavior: Findings from a nonclinical sample of undergraduate women.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4(3), 254.
- Jacob, G. A., Guenzler, C., Zimmermann, S., Scheel, C. N., Rüsich, N., Leonhart, R., ... & Lieb, K. (2008). Time course of anger and other emotions in women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preliminary study.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39(3), 391-402.
- Joyce, P. R., Light, K. J., Rowe, S. L., Cloninger, C. R., & Kennedy, M. A. (2010). Self-mutilation and suicide attempts: relationships to bipolar disorde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emperament and character.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4(3), 250-257.
- Kernberg, O. (1967). Borderline personality organiz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15(3), 641-685.
- Knight, R. P. (1954). Management and psychotherapy of the borderline schizophrenic patient In RP Knight & C.
- Koenigsberg, H. W., Harvey, P. D., Mitropoulou, V., New, A. S., Goodman, M., Silverman, J., ... & Siever, L. J. (2001). Are the interpersonal and identity disturbances in the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riteria linked to the traits of affective instability and impulsivit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5(4), 358-370.
- Kullgren, G. (1988). Factors associated with completed suicide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 Látalová, K., & Praško, J. (2010). Aggression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sychiatric*

- Quarterly*, 81(3), 239-251.
- Lazarus, S. A., Cheavens, J. S., Festa, F., & Rosenthal, M. Z. (2014). Interpersonal functioning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systematic review of behavioral and laboratory-based assessments. *Clinical Psychology Review*, 34(3), 193-205.
- Lieb, K., Zanarini, M. C., Schmahl, C., Linehan, M. M., & Bohus, M. (2004).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he Lancet*, 364(9432), 453-461.
- Linder, J. R., Werner, N. E., & Lyle, K. A. (2010). Automatic and controlled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young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9(7), 778-783.
- Linehan, M. M. (1993). *Skills training manual for treating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Guilford Press.
- Links, P. S., & Heslegrave, R. J. (2000). Prospective studies of outcome: Understanding mechanisms of change in patien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23(1), 137-150.
- Links, P. S., Eynan, R., Heisel, M. J., Barr, A., Korzekwa, M., McMMain, S., & Ball, J. S. (2007). Affective instability and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r in patien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1(1), 72-86.
- Lish, J. D., Kavoussi, R. J., & Coccaro, E. F. (1996). Aggressiveness. In C. G. Costello (E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ality Disordered* (pp. 24-28).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Little, T. D., Henrich, C. C., Jones, S. M., & Hawley, P. H. (2003). Disentangling the “whys” from the “whats” of aggressive behaviou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2), 122-133.
- Lobbestael, J., Cima, M., & Lemmens, A.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disorder traits and reactive versus proactive motivation for aggression. *Psychiatry Research*, 229(1-2), 155-160.
- Masterson, J. (1972). *Treatment of the borderline adolescent: A developmental approach*. New York: Wiley.
- McCloskey, M. S., New, A. S., Siever, L. J., Goodman, M., Koenigsberg, H. W., Flory, J. D., & Coccaro, E. F. (2009). Evaluation of behavioral impulsivity and aggression tasks as endophenotypes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3(12), 1036-1048.
- Moeller, F. G., Barratt, E. S., Dougherty, D. M., Schmitz, J. M., & Swann, A. C. (2001). Psychiatric aspects of impulsivit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11), 1783-1793.
- Morey, L. C. (1991).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Ostrov, J. M., & Houston, R. J. (2008). The utility of forms and functions of aggression in emerging adulthood: Association with personality disorder symptomatolog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9), 1147-1158.
- Ostrov, J. M., Hart, E. J., Kamper, K. E., & Godleski, S. A. (2011). Relational aggression in women during emerging adulthood: A social process model.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29(5), 695-710.
- Oumaya, M., Friedman, S., Pham, A., Abou, T. A., Guelfi, J. D., & Rouillon, F. (2008).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self-mutilation and suicide: literature review. *L'Encephale*, 34(5), 452-458.

- Pompili, M., Girardi, P., Ruberto, A., & Tatarelli, R. (2005). Suicide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meta-analysis. *Nordic Journal of Psychiatry*, 59(5), 319-324.
- Rafaeli, E., Howland, M., Vorus, T., Skodol, A. E., & Gunderson, J. G. (2007). Emotional reactivity to social context in patients with persistent versus remitte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Unpublished manuscript.
- Renneberg, B., Herm, K., Hahn, A., Staebler, K., Lammers, C. H., & Roepke, S. (2012). Perception of social participation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19(6), 473-480.
- Sadikaj, G., Moskowitz, D. S., Russell, J. J., Zuroff, D. C., & Paris, J. (2013). Quarrelsome behavior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Influence of behavioral and affective reactivity to perceptions of oth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2(1), 195.
- Sansone, R. A., & Sansone, L. A. (2012). Borderline personality and externalized aggression. *Innovations in Clinical Neuroscience*, 9(3), 23.
- Staebler, K., Renneberg, B., Stopsack, M., Fiedler, P., Weiler, M., & Roepke, S. (2011). Facial emotional expression in reaction to social exclusion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sychological Medicine*, 41(9), 1929-1938.
- Stern, A. (1938). Psychoanalytic investigation of and therapy in the border line group of neuroses. *The Psychoanalytic Quarterly*, 7(4), 467-489.
- Stiglmayr, C. E., Grathwol, T., Linehan, M. M., Ihorst, G., Fahrenberg, J., & Bohus, M. (2005). Aversive tension in patien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computer based controlled field study.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11(5), 372-379.
- Stockdale, L. A., Coyne, S. M., Nelson, D. A., & Erickson, D. H. (2015).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jealousy, and cyberbullying in adolesc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3, 148-153.
- Tangney, J. P., Wagner, P., Fletcher, C., & Gramzow, R. (1992). Shamed into anger? The relation of shame and guilt to anger and self-reporte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4), 669.
- Tragesser, S. L., Lippman, L. G., Trull, T. J., & Barrett, K. C. (2008).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and cognitive, emotional, and predicted behavioral reactions to teasing.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6), 1512-1523.
- Washburn, J. J., Romero, E. G., Welty, L. J., Abram, K. M., Teplin, L. A., McClelland, G. M., & Paskar, L. D. (2007). Development of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in detained youths: the predictive value of mental disord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5(2), 221.
- Werner, N. E., & Crick, N. R. (1999). Relational aggression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in a college sampl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8(4), 615.
- Weschke, S., & Niedeggen, M. (2013). The effect of the physical presence of co-players on perceived ostracism and event-related brain potentials in the cyberball paradigm. *PloS one*, 8(8), e71928.
- Widiger, T. A., & Trull, T. J. (2007). Plate tectonics in the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disorder: shifting to a dimensional model. *American Psychologist*, 62(2), 71.
- Williams, K. D., Cheung, C. K., & Choi, W. (2000). Cyberostracism: effects of being ignored over the Interne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5), 748.
- Zanarini, M. C., Frankenburg, F. R., Reich, D. B., Silk, K. R., Hudson, J. I., & McSweeney, L. B.

(2007). The subsyndromal phenomenology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 a 10-year follow-up stud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4*(6), 929-935.

원고접수일: 2019년 1월 18일

논문심사일: 2019년 2월 25일

게재결정일: 2019년 6월 21일

Aggression of Individual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endency under Conditions of Social Exclusion

Da-Yon Jeong¹⁾ Jong-Min Lim¹⁾ Ho-Wan Kwak¹⁾
Mun-Seon Chang¹⁾ Jong-Hwan Lee²⁾

¹⁾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Psychology and Management, Korea Military Academy

Unstable interpersonal patterns and aggressive behavior are central characteristics of the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Behavioral problems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s are often caused by negative interpersonal events and/or experiences such as abandonment. For this reason, it is crucial to examine aggressive behavior during such negative interpersonal events. Participants who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group (n=35) and control group (n=34), according to the PAI-BOR score. They were randomly assigned situations emulating social acceptance or exclusion during a cyberball game. The Point Subtraction Aggression Aggregation Paradigm (PSAP) was used to measure reactive-overt aggression, and the scenario, developed by Lyle (2010), was used to measure reactive-relational aggression. According to this study,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groups generally expressed more aggression than control groups. In particular, when the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group experienced a strong sense of alienation, reactive-relational aggression markedly increased.

Keywords: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social exclusion, reactive-overt aggression, reactive-relational aggression*